

빈곤문제와 전문적 사회사업의 딜레마 - 임상사회사업의 주도와 진보적 사회사업의 전망 -

황미영

사회과학부 객원교수, 사회복지학

<요 약>

이 글은 최근 전문적 사회사업에서의 임상사회사업의 권위와 주도가 저소득층의 빈곤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딜레마를 낳고 있다는 문제제기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빈곤문제에 대한 전문적 사회사업은 임상사회사업과 더불어 진보적 사회사업의 실천접근들이 통합적으로 접근, 유지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급격히 전문적 사회사업의 주류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임상사회사업과 이보다는 미약하지만 지속적으로 전문적 사회사업의 본질로 제기되어 온 진보적 사회사업에 대해 각각 그것의 개념과 목적을 고찰하고, 구체적인 실천에서의 차이점과 상호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빈곤복지에 있어서 전문적 사회사업의 본질로서 진보적 사회사업의 목적과 방법이 발전되어야 할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The problems of the unemployed poor and dilemmas of the professional social work:

The mainstreaming of clinical social work and the perspective of progressive social work

Meeyoung Hwang

professor of social welfare

<Abstract>

The ascendancy of clinical practices in the professional social work now brings

dilemmas of abdicating to commit themselves to the current important issue, the pain and malaise of the unemployed poor. This study examines whether clinical practices may be detrimental to the interests of the unemployed poor. To answer this question, this paper clarifies both the nature of the clinical social work and the purpose of the progressive social work. And then it sums up the common and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each practice. Throughout this investigation, we can conclude that the professional social work working with poor people must maintain the dual focus on the individual in need and on the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forces in society which may influence the individual misery. To accomplish these compound goals, social workers need to prepare and develop the methods and skills of the progressive social work.

1. 문제의 제기

최근 몇 년에 걸친 경제적 파국과 회복과정에서 전문적 사회사업¹⁾은 저소득층²⁾의 빈곤 문제에 어떤 역할과 기능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가라는 도전을 받아 왔다. 모든 경제지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중·고령, 저학력, 저기술을 가진 저소득층이 겪는 장기실직과 빈곤의 위기는 신자유주의적 시장정책 아래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우리 사회의 저소득 장기실직자들은 자립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구조적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장기실업 상태는 이들의 생활곤란 및 나아가 다양한 심리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가장 근원적인 사회적 요인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중심으로 이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일을 통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지원하는 자활지원 서비스³⁾가 새로운 빈곤해결 전략으로 제시되어 왔다(한국도시연구소, 2000).

그러나 최근 전문적 사회사업에서의 임상사회사업(clinical social work)의 권위와 주도는 저소득 장기실직자들의 자활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딜레마를 낳고 있다. 이는 우리 나라에서 전문적 사회사업을 펼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 대부분이 개인 중심적인 실천이론을 갖고 치료적 기능에만 초점을 두는 임상사회사업 접근에서 자신의 직업적 정체성을 찾으려는 경향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임상사회사업의 관점과 접근방법들은 거시적 수준에서의 조직의 붕괴, 사회변화, 경제적 압력 등에서 비롯되는 빈곤문제의 쟁점들과 관련된 사회사업의 기능을 설명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빈곤문제에 대한 자활지원 서비스의 구체적 전략들은 전문적 사회사업에서 “이중의 초점”⁴⁾이 유지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개별적인 욕구를 다루는 심리적 접근뿐만 아

1) 이 글에서 전문적 사회사업이란 민간 사회복지분야에서 사회사업교육과정(학부, 또는 대학원)을 졸업한 사회복지사들이 행하는 전문적 실천활동으로 정의한다.

2) 이 글에서는 저소득층을 빈곤선 이하의 소득계층 중 노동능력과 노동의지를 가진 사람이나, 빈곤선 차상위 계층의 실업자중 노동능력과 노동의지를 가진 사람들의 범주로 정의한다.

3) 자활이란 '외부에 대한 물질적, 정신적 빈곤상태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힘으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려는 시도'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노동능력과 노동의지를 갖고 있으나 실직이나 불안정한 생계수단으로 물질적, 정신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노동을 통해 자립에 이르는 과정을 의미한다(노대명 외, 1999). 한편 현재 정부가 자활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규정된 범주에는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또는 훈련, 직업훈련, 정부기관이 제시하는 자원봉사, 공공근로, 취업알선, 개인 또는 공동체 창업, 자활공동체 사업 등이 제안되어 있다.

나라, 이러한 고통을 야기시키고 있는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압력에도 관여하는 실천활동이 필요한 것이다(Reeser, 1996). 현실적으로 자활은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 그리고 ‘사회적 지원과 인프라 구축’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효과적으로 결합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전문적 사회사업에서 “이중의 초점”이란 새로운 주제라기보다는 사회복지 전문직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온 쟁점이었다(Johnson, 1986).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논쟁의 흐름은 전문적 사회사업의 본질 및 전망을 둘러싸고 임상사회사업과 진보적 사회사업(progressive social work)으로 양극화되어 나타났다.⁵⁾ 임상사회사업가는 자신의 직업이 개인적 수준에서 일하는 것이며, 개개인들에게 대처 및 적응능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적절한 기능을 돕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진보적 사회사업가들은 사회사업가의 과업이 더 넓은 공공적 쟁점에 관심을 두는 개혁가, 활동가가 되는 것이라고 보고있다. 이러한 진보적 사회사업은 사회사업의 역사, 전통, 사명에 깊게 각인되어 왔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들에게 전문적 실천의 본질적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빈곤문제에 대한 전문적 사회사업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이들 두 입장은 결코 양극화 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빈곤문제에 따른 개인적인 욕구나 고통들은 더 큰 사회적 관련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고, 전문적 사회사업이 개인은 물론 사회적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도 구체적으로 개입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적 사회사업가들은 빈곤상태에서 사회적 기능수행상의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개인적 욕구에도 반응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충족들을 사회가 어떻게 방해하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이를 변화시키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해야만 할 것이다.

이 글은 우리 사회 빈곤층의 사회정의와 요구를 둘러싼 딜레마를 전문적 사회사업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위한 시도이다. 따라서 이 글의 목적은 그 동안 전문적 사회사업의 본질에 대한 정의와 전망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최근 급격히 전문적 사회사업의 본질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임상사회사업과 이보다는 미약하지만 지속적으로 전문적 사회사업의 본질로 제기되어 온 진보적 사회사업에 대해 각각 그것의 역사적 등장배경과 개념, 구체적인 실천에서의 차이점과 상호관련성을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고찰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빈곤문제와 관련하여 전체로서의 전문적 사회사업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전망해 보려는 것이다.⁶⁾

이를 위해 이 글이 주된 쟁점으로 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다. 첫째, 임상사회사업과 진보적 사회사업이 등장한 역사적 배경에서의 차이는 무엇인가? 둘째, 임상사회사업과 진보적 사회사업에서 각각 초점으로 하고 있는 전문적 사회사업에서의 실천접근은 어

4) 이중의 초점(dual focus)이란 하나의 전문적이 개인적 수준에서의 욕구, 그리고 이러한 개인 문제들의 원인이 되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 모두를 동시에 다룰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가리킨다. 이러한 쟁점은 다양한 명칭들, 예를 들어 원인(cause)-기능(function), 사적인 곤란(private troubles)-공공쟁점(public issues), 심리적(psychological)-사회적(social) 쟁점으로 언급되어 왔다.

5) 많은 사회사업 저자들은 전문적 사회사업의 본질에 대한 논쟁이 두 가지의 관점, 즉 전통적 관점(정신분석적 접근)과 이에 대한 비판에서 발생한 급진적 관점으로 경합되고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필자는 이 글에서 최근 전통적 사회사업의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는 임상사회사업을 한 축으로 놓고, 이에 대한 다양한 급진적 접근들을 진보적 사회사업의 범주 안에 포함시켜 고찰하려고 한다. 미국의 경우 급진적 사회사업이라는 용어가 사회사업사전 18판에서 처음 나타났지만, 1980년대 들어 진보적 사회사업이라는 말로 바뀌어 사용되고 있다.

6) 이 글에서는 기존연구가 거의 없는 관계로, 우리 나라 전문사회사업의 이론 및 실천 경향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미국 전문사회사업의 논의를 중심으로 고찰하려고 한다.

떻게 구별되는가? 셋째, 임상사회사업이 주도하고 있는 전문적 사회사업에서 진보적 사회사업이 병행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떠한가?

2. 임상사회사업의 역사적 배경과 특성

1) 역사적 배경과 개념

임상사회사업은 정신분석학적 관점을 가진 정신의료사회사업의 후예라고 할 수 있다. 그 기원은 적어도 미국에서 임상사회사업회가 출현한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임상사회사업은 전문적 사회사업의 접근방법에 대한 과거의 구분들, 즉 케이스워크, 그룹워크, 지역사회조직 등 방법에 의한 구분과 의료, 정신, 가족, 아동서비스 등 배경에 의한 구분에 도전하면서 개인, 가족, 소집단 모두에 초점을 두는 새로운 실천적 역할 정의를 모색해 왔다. 그리고 그러한 시도는 미국 사회사업가협회(NASW)가 1978년에 임상사회사업에 대한 작업 팀을 설립하면서 인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Swemson, 1995)

그런데 임상사회사업의 개념 정의를 둘러싸고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공식적 입장으로는 NASW, 전국임상사회사업연합회(National Federation of Societies of Clinical Social Work), 사회사업학교, 규제 및 자격부여조직들마다 각각 그 정의가 다르며, 사적으로도 개별 사회사업가, 전문직, 공공의 성원들 모두 저마다 독특한 이해를 갖고 있는 상태이다.

임상사회사업에 대한 몇몇 개념정의들을 고찰해 볼 때, 우선 NASW(1984)는 다양한 관련 기관들의 전통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임상사회사업은 개인, 가족, 소집단의 심리·사회적 기능의 유지와 강화라는 모든 사회사업의 목적을 공유한다. 임상사회사업 실천은 정서적·정신적 병리를 포함하는 심리사회적 역기능과 장애의 치료와 예방에 대해 사회사업이론과 방법을 전문적으로 적용한다. 그것은 심리사회적 맥락에서의 인간발달에 대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지식에 기초되어 있다. 인간-상황의 관점이 임상사회사업의 실천에서 중요한 것이다. <중략> 임상사회사업의 과정은 사회사업의 목적 내에서, NASW 윤리강령에 포함된 원칙, 가치를 준수한다.

이는 전문적 사회사업에 있어서 전통적인 사회사업의 정의와 거의 흡사한 것이다. 단지 실천의 목적으로 좀더 성찰적이고 치료적인 초점(reflexive-therapeutic focus)을 강조하는 것만 다를 뿐이다(Payne, 1996). 한편 스펙트와 커트니(Specht & Courtney, 1994)는 보다 협소한 개념을 취하면서 임상사회사업가들을 심리치료를 행하는 실천가들로 정의한다. 그리고 이들의 역사적 등장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지역사회조직에 대한 옹호와 반(反)빈곤 프로그램이 당대의 요구로 받아들여짐으로써 오랫동안 전문적 권위의 세력을 쥐었던 정신의료 사회사업가들은 불명예스러운 퇴진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이 영원히 사라졌던 것은 아니었다. 1970년대 후반 그들은 새로운 이름, 임상사회사업이라는 새로운 사회사업의 물결을 타고 재등장했다. 지금 이 새로운 사회사업가들은 때를 지어 사적

인 실천(private practice) 속으로 들어갔다. - 이들은 새로운 클라이언트들과 잡다하고 실제적이지 않은 모든 심리치료를 행하고 있다.

한편 임상사회사업이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몇 가지 사회적 요인들이 한몫을 했다. 먼저 1980년대 들어 등장한 레이건과 부시 행정부는 푸드 스탬프, 학교급식, 아동보호와 같이 다양한 공적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을 상당히 삭감하게 된다. 이러한 예산삭감은 사회복지의 민영화를 꾀하기 위한 시도로서, 일부 사회복지 기능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폐기하고 정부 예산상의 지원 없이 이들 기능을 민간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넘기려는 것이었다. 이 때 많은 비영리 민간기관들은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사회복지 분야에서 상업적 서비스 제공자들과 사적인 시장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계기를 주었다. 게다가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 정부가 공동체적 가치, 질적 보호제공의 중요성, 사회적 욕구집단에 대한 사회 서비스 등을 완전히 무시해 버렸다는 점이다(Specht & Courtney, 1994).

다음으로 당시 전문적 사회사업가들의 연합이나 사회사업대학이 역임당하는 지역사회나 개인들의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심리치료적 전문가 소집단을 양성하여 사회사업직을 전문화하는 데에 능동적으로 개입했다는 점이다. 현재에도 많은 사회사업 대학원에서는 학생의 대다수를 심리치료가로 교육시키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사적인 실천의 장에서 심리치료에 종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미국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전체 사회사업가 가운데 심리치료와 사적인 실천에 초점을 두는 임상사회사업가는 1970년에 13%였던 것이 1990년에는 약 40%나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이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계속될 경우 전문적 사회사업은 심리치료 기업에 흡수될 것이라는 전망도 가능하다.

2) 실천의 초점

임상사회사업가의 중요한 역할은 개인사무실에서 다양한 형태의 심리치료를 제공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심리치료를 하려는 열망 속에서 번창하고 있는 이들의 주요 클라이언트는 “근심많은 사람들”인 중산층, 전문직, 20대에서 40대 연령의 백인집단이다(Specht & Courtney, 1994).

이들은 전문적 사회사업실천의 목적을 개인의 적응과 변화에 두고 있다. 이 때 ‘변화’란 클라이언트 개인의 개별적 환경(특히 즉각적인 상황)에서의 변화이다(Payne, 1991). 따라서 이들의 개입방법은 클라이언트 개인 자아의 불충분한 성장 때문에 정상적 생활과업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감정적, 인지적 기능의 손상을 고치도록 돕는 것이다. 물론 이들이 인간-상황이라는 관점을 취하고 환경을 전부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단지 개인적 난관의 해결에만 국한된다.

이러한 임상사회사업의 목적은 이들이 사용하는 실천 이론에서도 찾아진다. 임상사회사업이 기초하고 있는 이론은 주로 자신 내부의 사고, 바램, 충동에 대한 인식을 자유롭게 하도록 원조하는 프로이트의 정신역동이론이며, 이에 바탕을 둔 자아심리학이다. 이에 덧붙여 로저스의 인본주의 치료이론, 게스탈트 치료이론 등 미국에서 발전된 다른 치료이론들이 혼합되어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실천이론들은 개인의 개별적 치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의 사회

적 맥락은 인정할지라도 그것을 사회사업 밖에서 분리된 활동의 범주로 취급하고 있다. 또한 사회변화에 대한 요구를 인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회기관과 관료제의 무력함 또한 인정하고 있다(Payne, 1991). 한편 이들은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실천이론에 근거하여 클라이언트를 발육부진자로 다루고, 계약한 치료 기간동안에만 대가를 자신들에게 의존시키는 경향이 있다.

3. 진보적 사회사업의 역사적 배경과 특성

1) 역사적 배경과 개념

사회사업에서 진보적 사고는 오랜 역사를 지닌다.⁷⁾ 특히 1970년대에 중요성을 갖기 시작한 진보적 사회사업은 전통적인 정신역동적 사회사업이나 사회문제에 대한 심리학적 설명에 의존하는 이론들, 그리고 현 질서를 당연시하는 실증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했다. 당시 제도권에서 훈련받지 않은 새로운 사회사업가들은 대부분 '최대한 가능한 참여'를 강조하는 행동파들이었다. 그들은 제도화된 빈곤, 인종주의의 현실을 주목했고, 교육자들에게는 이러한 현실과 관련없는 교육과정을 변경하도록 영향을 미쳤다(Longres, 1996).

그리하여 전문적 사회사업에서의 진보적 사고는 인종문제, 여권주의 등을 주류 전통적 사회사업 실천의 대안으로 여기는 진보적 사회사업가들에게 중요한 정신으로 남아 있게 되었다(Craig et al., 1982). 한편 미국 외의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사회사업가들이 지금도 급진적 쟁점을 더욱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편이다.

진보적 사회사업의 개념은 자본주의의 문제를 이해하는 방식과 사회개혁 목표에서 혁명적 입장을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롱그리스(Longres, 1996)는 진보적 사회사업에 대한 접근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첫째 가장 급진적인 접근인 혁명적 맑스주의는 성, 인종, 종교 등의 갈등을 인정하지만 계급갈등에 비해서는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한다. 이 입장에 의하면, 사회사업가는 공공 및 민간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공급되는 서비스를 포기하는 대신 복지권 집단, 자조집단, 노동조합 등 노동계급에 의해 발전되고 통제되는 기층조직에 헌신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

둘째 가장 덜 급진적인 접근인 사회민주주의는 계급갈등의 원천으로서 자본주의의 한계를 인식하지만, 인종, 성, 연령, 종교 등을 둘러싼 갈등에 좀더 초점을 두고 있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복지국가를 하층민의 삶의 악화를 방지하는 안전망으로 보고, 사회사업가는 그러한 틀 아래 기초적 인간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공서비스를 위해 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셋째 위의 두 가지 접근 사이에 위치해 있는 진화적 맑스주의는 계급갈등을 낳는 자본주의가 사회문제의 근본적 원천이라고 보면서, 그것과 인종, 종교, 성에 대한 갈등의 결합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속성이 자본주의를 지지함과 동시에 노동계급과 빈민의 욕구를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사업가는 부자에 대한 하층집단의 이해(利害)를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공공서비스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7) 프랭클린(Franklin, 1990)은 미국에서 진보적 사회사업이 지배적이었던 시기를 세가지로 보고 있다. 1기는 이른바 진보적 시기(1907-1915년)로, 10만명의 남동유럽 이민이 미국으로 유입되어 경제는 물론 백인 미국문화전통의 지배를 위협했던 시기이며, 2기는 1930년대로 미국이 대공황에 시달렸던 시기이고, 3기는 1960-1970년대로 시민권운동과 월남전 반대운동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이다. (Longres, 1996)

2) 실천의 초점

진보적 사회사업에서는 클라이언트의 개인적 곤란이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제도 등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에서 야기된 것으로 이해한다. 즉 질병, 정신질환, 가정폭력, 교육적 실패, 범죄, 비행 등과 같은 문제를 물질적 불안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의 물질적 욕구가 중요한 강조점이 되면서 전문적 사회사업의 핵심적 클라이언트는 물질적 결핍과 불안정을 경험하는 사회경제적 하위계층- 육체노동자, 노동 및 실업빈민, 부랑인과 그들의 가족-이 된다. 다시 말해 전문적 사회사업의 목적은 대중의 경제적, 물질적 안녕을 꾀하는 데에 있으며, 사회사업가의 중요한 과업은 빈민이나 노동자의 이익을 위한 복지권의 신장 및 변화대행자(change agent)로 행동하면서 사회제도를 개혁해야 하는 데 있다고 파악한다(Longres, 1996).

푼(Fook, 1993)은 진보적 사회사업의 중요한 실천원칙을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첫째 사회사업가가 다루는 개인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적 구조의 정의, 둘째 사회사업의 사회통제적 기능이 클라이언트에게 불이익을 낳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속적인 분석과 시도, 셋째 클라이언트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회적·정치적·경제적 요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과 비판, 넷째 더 많은 권력을 가진 개인과 집단의 억압으로부터 클라이언트를 보호하기, 다섯, 개인의 해방·권력강화를 중진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이익을 주는 사회변화의 추구이다(Payne, 1996).

이러한 목적을 향해 설계된 진보적 사회사업의 주요한 실천형태들로는 주창(advocacy) 전략, 집합적 행동(collective action), 권력강화(empowerment) 전략, 그리고 의식화(consciousness-raising) 등이 개발되어 왔다. 주창전략은 무능력한 지역사회 대중의 자립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사례주창(case advocacy)과 대의주창(cause advocacy)으로 분류된다. 사례주창은 지역사회에서 고안된 사회적 서비스들이 클라이언트에게 보다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려는 목표로 사회사업가가 추진하는 활동이라고 한다면, 대의주창은 클라이언트가 속한 사회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변화를 추구하려는 활동이다. 주창전략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회사업가의 역할은 클라이언트의 현실을 이해하고 그들 속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데에 있다.

한편 집합적 행동은 사회사업가가 노동계급, 특히 노동조합과 연대하고 그들에게 정치적 행동이나 지역사회 활동에 참가할 것을 강조하는 것을 뜻한다. 끝으로 권력강화 전략에서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정체성을 획득하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성적 자원과 동시에 재정적 자원 모두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전제들로부터 권력강화 전략은 클라이언트를 원조할 때 인간자본의 취약성과 물리적 자본의 문제를 동시에 다루는 실천전략을 구성하게 된다. 끝으로 의식화 접근에서는 집단적 활동 외에 사회사업가는 개별적 접근활동으로서 사회가 개인을 억압하는 방식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도움으로써 자의식(self-awareness)의 증진을 꾀하게 된다. 이를 통해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인간성을 주장하고 비인간화를 가져오는 제도들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들의 주요 실천이론은 심리학보다는 1960, 1970년대의 사회학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남미(南美)의 빈곤 및 정치적 무력으로 억압받는 지역사회 민중들에 대한 프레이리의 의식화교육 이론, 맑스주의 이론, 여권주의 이론, 솔로몬의 무력(powerlessness) 및 부정적 가치평가(제도화된 차별) 등의 개념, 학습된 무력이론(learned

helpless theory) 등 좀더 거시적 쟁점에 초점을 두는 인간행동이론들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이론은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억압을 받는지에 대한 사회적 차원에서 설명 관점을 제공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억압에 대응한 실천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4. 임상사회사업과 진보적 사회사업의 비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보적 사회사업과 임상사회사업은 등장 배경, 중시하는 클라이언트의 문제, 그리고 실천접근 면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진보적 사회사업과 임상사회사업이 각각 역사적으로 유행되었던 배경은 전문적 사회사업직의 발전과 관련한 내적, 외적 조건을 구분하여 고찰할 때 좀더 명확해진다.

먼저 외적 조건을 보면, 진보적 사회사업이 대두했던 시기는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이 주도하고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다른 시기에 비해 더욱 강조되었던 때이다. 이에 비해 복지국가가 후퇴하기 시작한 1970년대 후반 이후 사회사업가가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투쟁으로부터 하나둘 절연하게 됨에 따라, 임상사회사업이 주요한 전문적 사회사업의 경향으로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임상사회사업이 등장할 당시는 진보적 사회사업이 발전했던 시기에 비해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적 성향의 정치가 지배하고 경제적으로 적자감소, 세금삭감의 요구가 거세었던 시기였다. 따라서 복지의 책임이 민간이나 개인에게 돌려지는 사회복지에 대한 민영화의 경향이 지지되고, 공적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이 상당히 삭감되기 시작했던 것이다(Reeser, 1996).

한편 사회사업 전문직 내부의 인적(人的) 배경을 살펴보면, 진보적 사회사업은 사회사업 전문직의 직업화라는 개인적 열망에 1차적인 관심을 두지 않는 사회사업가와 제도권에서 훈련받지 않은 행동주의자들에 의해 주장되었다. 이에 반해 임상사회사업은 시장의 요구에 반응하여 사회사업가의 계급적 이해를 만족시키는 서비스의 제공에 초점을 두는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회사업가들에 의해 주장되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사회사업가를 대표하는 공식적인 협회와 사회사업대학에서의 전문적 사회화의 교육과정 내용이 적극적으로 동조한 결과였다.

이렇게 임상사회사업과 진보적 사회사업의 사회적 촉발계기와 인적배경에서의 차이점은 그들이 관심을 두려는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그것의 실천접근에 뚜렷한 차이를 가져 왔다. 임상사회사업의 경우 주요 클라이언트는 “근심많은” 중산층이며, 주로 정상적 생활과업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감정적, 인지적 기능의 손상을 치료하는 데 관심을 둔다. 이들 역시 인간-상황이라는 이중의 초점을 취하고 환경을 전부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단지 개인적 난관의 해결에만 국한되는 것이다.

한편 진보적 사회사업에서는 핵심적 클라이언트가 물질적 결핍과 불안정을 경험하는 사회경제적 하위계층- 육체노동자, 노동 및 실업빈민, 부랑인과 그들의 가족-이 된다. 그리고 사회사업가의 중요한 과업은 빈민이나 노동자의 이익을 위한 변화 대행자(change agent)로 행동하면서 사회제도를 개혁하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미국사회에서 진보적 사회사업이 지속적인 정치적 논쟁과정을 통해 내부적으로 임상적 실천과 사회행동주의에 대한 강조에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왔다는 점이다(Longres, 1996). 이러한 논쟁과정은 진보적 사회사업에 대한 다양한 비판으

로부터 자극된 것이었다.

진보적 사회사업에 대한 주요한 비판점들을 살펴보면 첫째, 진보적 사회사업이 의식화나 집합적 행동의 형태를 선호한 나머지 직접적인 개인적 욕구들을 무시하는 경향을 낳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들 이론들은 사회사업가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행동이나 사건들에 대한 부분적인 설명만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급진적 이론들은 정서적 문제들을 다루는데 취약하다. 왜냐하면 물질적, 사회적 쟁점들이나 복지권과 같은 서비스 증진에 대한 몰두가 개별 클라이언트가 제시하는 문제들에 반응하기보다는 그들이 선호하는 이론들로부터 비롯된 전제들에 기초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정서적, 개인적 문제들을 무시하기 때문이다(Payne, 1996).

이러한 내부 논쟁의 핵심은 행동주의 개입 대 임상적 개입의 상대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많은 진보적 사회사업가들은 사회환경을 변화시키는 데 일차적으로 관심을 가지지만, 사회의 억압적 구조가 대중들에게 내재화되어 있다는 사실 또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진보적 사회사업가들은 억압적 환경의 재생산으로부터 클라이언트를 보호하기 위해 개별적, 심리적 변화를 위한 활동의 필요성도 받아들여 왔다. 그리하여 그들이 비판했던 임상사회사업의 주요 실천접근인 통찰력 치료처럼 클라이언트의 대처능력 강화에 집중하는 개별적이고 심리적 접근의 실천방법도 활용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때 진보적 사회사업 역시 억압적 사회구조의 직접적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사회변화의 책임을 클라이언트에게 놓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임상사회사업과의 간격을 좁히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진보적 사회사업가는 궁극적으로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의 맥락에서 임상적 개입과의 상호관련성을 받아들인다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Longres, 1996). 즉 임상사회사업이 개인의 성장을 목표로 하여 사회사업가와 클라이언트간의 상호작용과 영향에만 초점을 둔 나머지 지역사회 사회적 서비스의 분배, 사회 변화의 중요성을 격하시키는데 반해, 진보적 사회사업은 좀더 구조적인 차원을 분명하게 강조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전문적 사회사업이 헌신해야 할 클라이언트의 사회경제적 성격과 문제해결을 위한 목표 면에서 사회사업가의 위치를 분명히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 빈곤문제와 전문적 사회사업의 방향

최근의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지금까지 살펴본 전문적 사회사업의 역할을 둘러싸고 대립점에 있는 임상사회사업과 진보적 사회사업의 실천접근들이 양극화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현재의 빈곤문제는 상대적 빈곤의 증가로 인한 박탈감, 소외감, 무력감 등의 심리·사회적 빈곤의 문제와 겹쳐져 있다. 즉 전문적 사회사업의 대상이 되는 빈곤문제는 빈곤층의 물질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가치, 태도 등의 문제인 것이다.

요컨대 빈곤문제는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에서부터 계층이나 계급구조, 정치·행정적 요소, 사회변동의 형태와 속도, 그리고 역사적인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특징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현외성, 1994; 김성천, 1997). 그러므로 빈곤문제에 효과적으로 접근하려면 지역사회에서의 심리·사회적 자활은 물론 경제적 자립을 가져오기 위한 통합적인 사회적 시

도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복지직이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전문직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 사회적 통념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사회복지사들이 부딪치는 사회문제들 가운데 사회복지실천 현장마다 가장 빈도가 높은 문제는 빈곤문제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송성자, 1999). 더욱이 저소득층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는데 주요 목표를 둔 민간복지기관이 정부의 지원 하에 설치, 확산될 전망이다.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적 사회사업은 그 동안 사회적, 전문적 발달과정 속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정신분석, 인간심리학 등의 개별적 접근이론들이 사회문제를 다루는 적절한 수단임을 믿도록 사회화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이들은 전문직으로서의 지위강화와 심리치료적 가치에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역사적 뿌리인 빈곤층의 사회정의에 대한 헌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커다란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전문적 사회사업의 딜레마는 박탈당한 계층의 고통과 사회정의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그것의 역사적 뿌리인 빈민에 대한 헌신을 포기하게 된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롱그레스(Longress, 1996)의 말처럼 아직도, 그리고 앞으로도 물질적 평등에 대한 투쟁은 사회사업을 하나의 전문직으로 있게 하는 아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상황에 대한 포괄적 관점과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사회에서 억압받는지를 설명해주는 유용한 개념과 틀을 제공하는 진보적 사회사업의 목적과 방법은 전문적 사회사업 실천의 본질로서 포기되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회사업이 하나의 전문직으로 성장해 온 역사적 뿌리인 동시에, 미래에도 전문적 사회사업가의 사회적 존재 의의를 규정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역할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임상사회사업이 주도되고 있는 우리나라 전문적 사회사업의 현실에서 진보적 사회사업이 병행 발전될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이에 대해 21세기의 전문적 사회사업의 방향을 진단하고 있는 리서의 주장은 우리 나라 현실에도 유용한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된다. 리서에 의하면 최근의 전문적 사회사업의 변화하는 흐름에 대해, 사회사업을 전문화하려는 노력이 빈민이나 노동계급의 이익을 어느 정도 손상시키고 있는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전문적 사회사업이라는 직업이 박탈당한 계층의 고통과 어려움에 반응함이 없이 생존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그는 미래를 향한 사회사업의 도전은 이러한 심각한 딜레마의 해결을 위한 몰두에 있음을 제안하면서, 사회사업교육은 지역사회 하층조직, 지역개발 등의 거시적 개입을 고려하는 가운데 학생들로 하여금 미시적, 거시적 범위의 방법을 익히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Reeser, 1996). 이렇게 전문적 사회사업이 사적이고 미시적인 개인적 차원과 공적이고 거시적인 사회구조적 차원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공의 협력, 전문직 교육, 서비스체계의 조직, 사회사업에 대한 신념체계에서 매우 큰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Specht & Courtney, 1994).

8) 저소득층이 겪는 고용문제와 이와 관련된 빈곤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한 자활지원센터가 1996년부터 현재 전국적으로 20개가 설치되었으며, 3년 내에 독립적 형태로든 부설적 형태로든 250개로의 양적 확산이 계획되고 있다(한겨레 21, 1999).

<참고문헌>

- 김성천, “빈곤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사업실천방법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33권, 1997.11.
- 송성자, “한국 사회복지 실천이론의 적용과 개발과제,”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1999. 10.
- 한국도시연구소, 자활생산공동체 운동의 길잡이, 한국도시연구소, 2000.
- 노대명·김홍일·김신양, 도시영세민 자활지원방안, 한국협동조합연구소, 1999.
- 한겨레 21. 1999.
- Craig, G., Derricourt, N & Loney, M., “Introduction : Toward radical practice,” *Community work and State*, Routledge & Kegan Paul, 1982.
- Johnson, L. C., *Social work practice*, Allyn and Bacon, 1986.
- Longres, J. F. “Radical social work - Is there a future?,” Raffoul, P.R. & McNeece, C.A., *Future issues for social work practice*, Allyn and Bacon, 1996.
- Payne, M., *What is professional social work?*, Venture Press, 1996.
- _____, *Modern social work theory : A critical introduction*, LYCEUM, 1991.
- Reeser, L., “The future of professionalism and activism in social work,” Raffoul, P.R. & McNeece, *Future issues for social work practice*, Allyn and Bacon, 1996.
- Specht, H. & Courtney, M. E., *Unfaithful angels - How social work has abandoned its mission*, The Free Press, 1994.
- Swemson, C. R. “Clinical social work,” *Encyclopedia of social work*, 19th version, NASW, 1995.